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동·서해선 철도 연내 착공

“평양공동선언 합의 내용은

“미국, 상응 조치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남북군사공동위 가동...한반도 항구적 평화지대로

남북 정상이 19일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경제·사회·문화·인도적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합의가 담겼다.

우선, 선언에는 비핵화와 관련,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있다. 나아가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선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답방 시점과 관련, 연내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선언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제와 사회 부문에 있어서 선언에는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19일 오후 평양 유류관 오찬장에 입장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으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금강산 지역의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

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직접사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문화·예술·체육·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확대를 위해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하기로 했다. 또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

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무위원장이 맺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2019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무위원장이 맺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3·1운동 100주년(2019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교착상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희망”

주요외신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외신은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며 이번 발표의 의미를 집중 분석했다.

외신은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데 주목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한국과 한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겨냥한 김정은의 대담한 전략(gambit)”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이번 발표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돌파구를

WSJ “김정은은 대담한 전략”

CNN “전쟁없는 시대 약속”

가디언 “비핵화 조치 미흡”

마련하는데 있어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남북이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전 세계로 생중계된 문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사회 앞에서 유성으로 이 같은 약속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는 등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으나 세계 앞에서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 역시 미국이 기대하는 주요 비핵화 조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AP통신은 “기대를 하게 하는 몇몇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 핵시설 리스트 제출 약속,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표, 진전 상황 평가와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한 국제 사찰단 임무 허용 합의 등과 같은 위상권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라는 주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핵 문제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것은 워싱턴 관리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우리는 이종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계를 맺는 데 계속 열의를 갖는 동시에 비핵화 진전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회의론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핵사찰 허용, 매우 흥분된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고 평가하고 “북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서 서명하고 곧바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공개한 지역 1시간 만인 19일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처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협상에 부처질’(subject to

final negotiations)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핵사찰 허용이 북미가 진행하는 비핵화 최종 협상 의제로 포함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담긴 내용, 즉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동안에 로켓과 핵 실험은 더 없을 것”이라며 “전쟁 영웅들도 계속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에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한 뒤 끝으로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당일 신속처리 010-6834-7400

## “평양공동선언 환영”

광주시·전남도 성명

광주시와 전남도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과 논평을 일제히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은 8000만 겨레에게 잊지 못할 한가위 선물이었다”면서 “새로운 한반도 역사를 열어나가는 일은 더 이상 멈출도 뒷걸음질도 없어야 한다. 끊임없이 만나며 오직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 길에 150만 광주시민을 비롯한 한 겨레가 함께 할 것이다”면서 “역사사자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 등 문화·스포츠 교류에서부터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함께 이루어갈 평화와 번영의 미래에 광주 시민도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논평을 내고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동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 한반도 평화와 공존 시대가 하루 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 자치단체 간 교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법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니 필요하면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교류와 산림, 희귀광물 자원 분야 교류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옥·오광록 기자 jw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투자자 모집**

경기도 양평/1억원 이상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속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속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펜션·전원주택지**

-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옐도리도인근 602㎡ 5천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촌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1868㎡ 찻집등적합 1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급매 경기 수원시 장안구 45평형아파트 분양 5억9천 매도 4억9천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점 대지 149㎡ 2중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중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전차수지부근 2억7천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해지면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신고 3억5천 매도 3억
- 영광 흥농읍 주거지 5223㎡ 공시지가 6700 매도 8500
- 나주시 동수동 자연녹지 12076㎡ 교통 좋음 14억7300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실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시속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 금남로 57억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상가건물**

- 고흥 나로도인근 펜션 땅 6891㎡ 건평 267㎡ 객실10, 은행3억, 7억5천
- 여관 목포시 옥암동 땅 439㎡ 건물 989㎡ 객실26 은행 4억 매도 7천만
- 북동 토지 538㎡ 건물 1933㎡ 은행 9억2천 매도 1억 6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펜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업적합 3억천
- 목포시 북항 푸드타운 1층 91㎡ 은행 9천 매도·교환 3억4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중추해서 요양병원적합 65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앞문앞